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고고학적 의미*

강현숙**

-
- I. 머리말
 - II. 고구려 고분 판단의 고고학적 근거
 - III.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고고학적 의미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중원지역이 고구려에 점유되었음은 <충주고구려비>와 『삼국사기』, 그리고 발굴조사로 드러난 고구려 성곽에 의해 확인되었다. 고구려 고분은 성곽보다 알려진 자료가 많지 않지만, 재점유된 성곽과는 달리 고구려 주민이 남긴 당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글에서는 고분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는 고고학적 전제에서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을 살펴보았다.

살피고자 하는 대상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 및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의 석실분 가운데에

* 본 논문은 충청북도 주최, 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융합의 공간, 中原: 中原과 고구려』(2022.09.22.)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서 고구려식으로 축조되었거나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고분이다. 석실은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전제에서 분석은 석실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중원지역의 석실의 구조와 축조방식은 고구려식 또는 중원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화된 고구려식 그리고 양자가 혼용되기도 하였으며, 선행묘제나 백제식 축조방식이 선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축조방식과 고구려 양식 토기의 부장 여부를 기준으로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 유형각각은 중원지역 고구려 주민 계통과 남하 경로 및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고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의 주민은 고구려와 직, 간접 계보 가지거나, 맥계 또는 백제계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중원지역으로 진출은 북한강 유역에서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한성으로부터 경기도 남부 내륙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를 경유하였고, 북한강 유역으로 진출은 늦어도 5세기 전반경에, 경기도 남부 내륙으로 진출은 한성 공략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주제어 :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 고구려 양식 토기

I. 머리말

고분은 당대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고학에서 고분은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경향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원지역에서 고구려식으로 축조된 무덤은 고구려 주민이 남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원지역에 대한 공간적 이해는 충주 일원으로 제한되기도 하고,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을 포함한 중부 내륙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범

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충주 일원으로 중원의 범위를 한정된 것은 『삼국사기』 기록과 <충주고구려비>로 충주를 고구려 국원성으로 비정한 데 따른 것이며, 충주를 벗어나서 중원을 경상북도 북부와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 일부 등 확장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구려의 중원 진출과 신라의 한강 진출 등 북한강, 남한강과 한강분류 등 물길과 결부된 교통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여하튼 고구려 진출 이전 중원지역은 마한 또는 맥, 백제의 공간이었고, 고구려의 남방진출로 고구려 영역이 되었다가 신라의 진출로 신라로 전환되는 등 중원지역의 물질문화는 시공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글에서는 중원지역은 물길과 결부시켜 충주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 일부 등 확장된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확장된 중원지역에서의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의 남방진출에 따른 지방지배를 방증하는 자료로 이용되기는 하였지만, 고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다지 활발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고분이 각지에 분산되어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양호하지 못한 잔존상태가 연구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고분 자료가 갖는 한계로 중원지역 고구려 고분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성격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시공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띤 중원 각 지역 고구려 석실분을 고구려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Ⅱ. 고구려 석실분 판단의 고고학적 근거

고구려가 중원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시기는 국원성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한성을 공략한 475년에는 <충주고구려비>가 설치되었을 것이므로(임기환, 2000, 417~433쪽 ; 동북아역사재단, 2020), 국원성은 늦어도 5세기 후엽에는 설치되었을 것이며, 신라 진흥왕이 아시촌에 소경을 세운 514년을 즈음하여 국원성은 상실되었을 것이

며, 진흥왕이 한강으로 진출한 561년에는 중원지역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원성 기간은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초까지의 50년이 채 안 되며, 길게 보아도 100년이 못 되는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 이 기간에 조성된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은 구조와 부장품의 내용에서 동시기 혹은 앞 시기 고구려 고분¹⁾과 특징을 공유할 것이므로, 중원지역 고구려 고분 판단의 고고학적 근거로 고구려 고분의 구조와 고구려 양식 문물의 부장을 들 수 있다.

1. 석실의 구조와 축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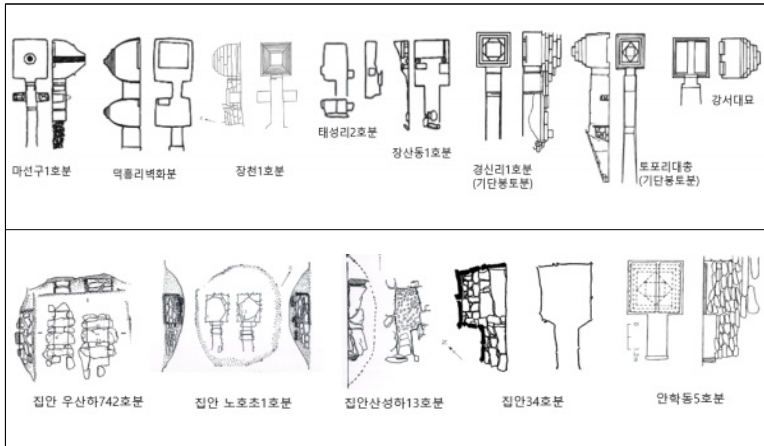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에서 추가합장이 가능한 구조를 완비한 석실은 4세기를 즈음하여 출현하였고, 적석총과 봉토분의 매장부로 자리하다가 6세기에 들어서면서 봉토분의 매장부로 정착되면서 고구려 석실의 전형이 마련되었다(강현숙, 2013, 170~177쪽). 따라서 5세기는 석실을 매장부로 한 적석총과 봉토분이 병존하는 한편, 적석총과 봉토분이 결합된 석실기단봉토분도 함께 하였다. 그중에 초대형 규모의 석실기단적석총과 벽화가 그려진 석실봉토분이 상위의 대형분이다.

대형 석실봉토분은 5세기에서 6세기를 경과 하면서 복잡한 구조에서 간단한 구조로 변화한다. 5세기의 석실은 현실과 연도 외에 전실이나 측실 등 별도의 공간이 부가된 복잡한 평면구조도 있으며, 천장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높게 쌓아 올렸다. 특히 벽화분의 경우 현실 벽면에 생활의 여러 장면을, 천장에 상서로운 하늘 세계를 그려서 높은 천장부의 형성은 계세관념의 구조적 표현이며 이는 5세기 석실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6세기의 석실은 현실과 연도의 단칸 구조로 간략해지고, 천장은 고입식으로 정형화되면서 5세기 석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1) 이하 글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 고분으로 표현하고, 중원지역의 설명에만 중원지역 고구려 고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실 네 벽에 사신이 그려져서 석실 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사후관념의 변화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강현숙, 2013, 235~239쪽).

중, 소형분은 대형분처럼 시간에 따른 변화가 구조에 드러나지 않는다. 석실은 지상이나 반지하에 위치하며,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 구조다. 방형현실, 중앙연도의 평면구조가 선호되었고, 천장은 평행고임이나 삼각고임 등의 고임식이 사용되었다. 중, 소형분의 구조는 대형분과 차이가 크지 않다. 단지, 대형분 축조에서 관찰되는 석재의 의도적 선택이나 석재에서의 수준 높은 치석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그림1).



「그림1: 고구려 석실봉토분」(상: 석실봉토벽화분, 대형분, 하: 중, 소형분)

고구려 석실의 축조는 서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식도 있지만, 대체로 지면이나 반지하에 기초를 다지고 크고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쌓으면서 동시에 흙으로 분구를 조성한다. 대, 소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할 때는 큰 돌을 눕어서 아래에 쌓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리며, 돌은 엇갈려가며 올려 쌓는다. 벽돌처럼 비슷한 크기

의 활석을 이용할 때는 긴 쪽으로 누어 엇갈려가며 쌓는다. 가공하지 않은 석재로 인한 벽석 사이 틈새는 작은 돌이나 점토, 또는 백회로 메우고, 벽면에 회를 발라 벽면을 고르게 하는 동시에 벽체를 강화한다. 한편, 요동성충, 평안남도 용강 황산록의 일부 석실분이나 평양 삼석구역 호남리19호분의 경우 판상석으로 축조하기도 하였지만, 판상석이 고구려에서 선호되었던 축재는 아니다.

석실은 현실과 연도를 기본구조로 하며, 현실 평면형과 연도 위치에 따라서 평면구조는 다양하지만, 현실 평면형과 관계없이 선호되었던 것은 중앙연도이다. 치우친 연도의 경우 압록강 중하류 이북지역에서는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치우친 연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북한 일대에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아마도 서북한 지역 선행무덤인 낙랑 벽돌무덤이 중앙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가 우세한 점과 관계있을 것이다.

현실 바닥은 점토를 깔고 그 위에 숯이나 냇돌을 켜켜이 한 후 다시 점토를 다지고 마지막에 회를 바르기도 한다. 현실 내에 돌로 쌓은 관대는 중앙연도의 경우 양 장벽에, 치우친 연도의 경우 연도가 없는 장벽 방향을 길이로 놓고, 현실의 폭이 좁은 경우 현실 중앙에 하나만 놓이기도 한다. 주로 큰 무덤에서 관대가 확인되지만, 대형분 중에는 관대가 없기도 하므로 관대 여부로 무덤의 위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현실 벽은 수직으로 쌓아 올리다가 위로 가면서 조금씩 줄여 쌓아 상부의 너비를 줄인 후 2~3매 돌로 천장을 덮은 평천장, 일정 높이로 벽을 쌓은 후 돌을 내밀어 고여 올려서 천장부의 폭을 좁힌 후 한 장의 돌로 막는 고임식등 두 가지 방식이 보편적이다. 궁륭상 천장은 4~5세기의 벽화분에서 관찰되지만, 중, 소형분이나 6세기대 석실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다. 소형분에서 관찰되는 평천장은 삼국시대 석실에서 공통된 방식이어서 고구려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천장가구는 평행고임이나 삼각고임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식으로 축조한 고분의 구조 속성은

지상이나 반지하에 위치, 현실 바닥과 벽에 백회(白灰)의 사용, 고임식 천장이다. 특히 네 모서리에 돌을 내밀어 고이는 삼각고임천장은 동시기의 백제와 신라 석실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서 고구려식 석실 판단에서 안정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원지역 고구려 양식 토기

부장 유물에서 특정 양식이 설정되면, 특히 역사고고학에서 특정 속성이 결집된 토기 양식이 설정될 경우 토기 양식을 고대 국가의 지표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순발, 1998 ; 이희준, 1998). 가령, 백제 한성기 양식 또는 신라 양식 토기가 설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성기 백제나 신라의 공간 범위를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중원지역 석실분에서 고구려 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면, 고구려 고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원지역에서 고구려 기술 또는 고구려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부장품 가운데²⁾ 석실에서 출토된 토기는 태토와 기형, 제작기술에서 고구려 토기와 공통된다(최종택, 2020, 515~526쪽). 중원지역의 고구려 양식 토기는 태토에 사립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태토는 정선된 고운 점토이고 성형은 로 테쌍기를 한 후 물레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며, 예새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깎거나 문지른다. 무늬는 없

2) 토기 외에도 고구려 양식 부장품으로는 귀걸이를 들 수 있다. 춘천 중도 C-2-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금제 굵은고리 귀걸이는 소환연접구체 아래에 추형수식이 뿔질로 연결되었고, 중도 F-석곽묘에서 출토된 귀걸이는 주환없이 금제 소환연접구체 중간식 아래에 중엽의 심엽형 수하식만이 남은 것이다. 전자는 평안남도 강서 태성리에서, 후자는 대동 보림리에서 같은 형태가 출토된 바 있어서 고구려 양식 귀걸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추형수식이 달린 금제 굵은고리 귀걸이는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이어서 금제 귀걸이의 속성상 고구려 귀걸이라고 하여도 전세되었거나, 귀걸이만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금제 귀걸이만으로 고구려 고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나 동체 상부에 음각선, 점열이나 물결무늬가 있으며, 그릇 표면을 문질러서 정면 효과를 내기도 한다. 밀폐된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소성하였지만, 출토된 토기의 대개는 무른 상태이며, 신라 토기처럼 고화도 소성으로 인한 자연유나 유리질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기종은 평저 호와 용이 다수를 점한다. 기형과 제작기법에서 고구려 토기와 강한 공통점을 보이는 토기는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과 남한강 유역에서 확인되었고, 북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토기 잔편이 보고되기는 하였지만, 석실 내에서 고구려 양식 토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그림2).



「그림2: 고구려 구형호와 중원지역 석실분 출토 고구려 양식 토기 (축척 부동)」

중원지역의 고구려 양식 토기는 용인 보정리1호와 2호분, 화성 청계동1호분 그리고 충주 두정리2호와 6호분, 충주 단월동5호와 10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 토기의 분류에 따르며 중원지역의 고구려 양식 토기는 구형호이며, 동체 형태에 따르면 B형과 C형 두 종류가 있다. B형 구형호는 충주 두정동2호분과 단월동 10호분에서 출토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C형 구형호로 그 시기는 대체로 5세기

중, 후반으로 비정된다(최종택, 2020, 522~526쪽).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의 용인에서는 보정동1호분에서 적갈색 연질토, 2호분에서 흑색마연연질토 각 한 점씩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두 점 모두 동체가 길어진 구형호C형이다. 화성 청계동1호분의 C형 구형호는 흑색토기로 그릇 표면을 타날하여 정리한 후 타날흔을 지우고, 동최대경이 위치하는 곳에 두 줄의 횡선대와 꺾음선문을 음각하였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충주 두정리와 단월동에서 출토되었다. 두정리 2호분 토기는 구형호B형로 적색호이며, 그릇 표면을 예새로 잘 정돈하였다. 6호분 토기는 구연부와 동체 상부 일부가 남아있지 않으나, 전체 형태는 구형호C형으로 2호분 토기와 같이 적색을 띠며, 테쌓기 한 후 예새로 그릇 표면을 정리하였고 동체 중상부에 횡선대 사이에 물결무늬를 새겼다. 단월동5호분과 10호분 출토된 토기는 회색을 띤다. 5호분 토기는 구형호C형에 해당되며, 목에 비서 바닥이 넓은 편이며, 목과 동체 상부와 중간 세 곳에 음각선이 돌아간다. 10호분 토기는 무늬가 없으며 기형은 두정리2호분 토기와 유사한 구형호B형에 해당된다. 10호분에서는 고구려 양식 토기와 함께 고구려 양식 토기가 아닌 심발형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고구려 양식 토기는 고구려 고분으로 판단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이지만, 토기가 부장된 고분이 몇 예에 불과하여서 고구려 고분 판단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석실을 통해서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구조와 축조 방식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7기 고분은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 가운데는 삼각고임 천장이나 현실의 바닥이나 벽에 백회를 사용 등 고구려식 속성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충주 두정동2호와 6호분에서 보이는 현실 바닥의 부분 불다짐은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이어서 두정동의 현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동1호분은 현실 바닥이나 벽 축조에 백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실 바닥에 잔돌이나 점토를 이용하여 정면하고, 현실 벽 축조는 고구려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러한 속성도 중원식 고구려 축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을 바꾸어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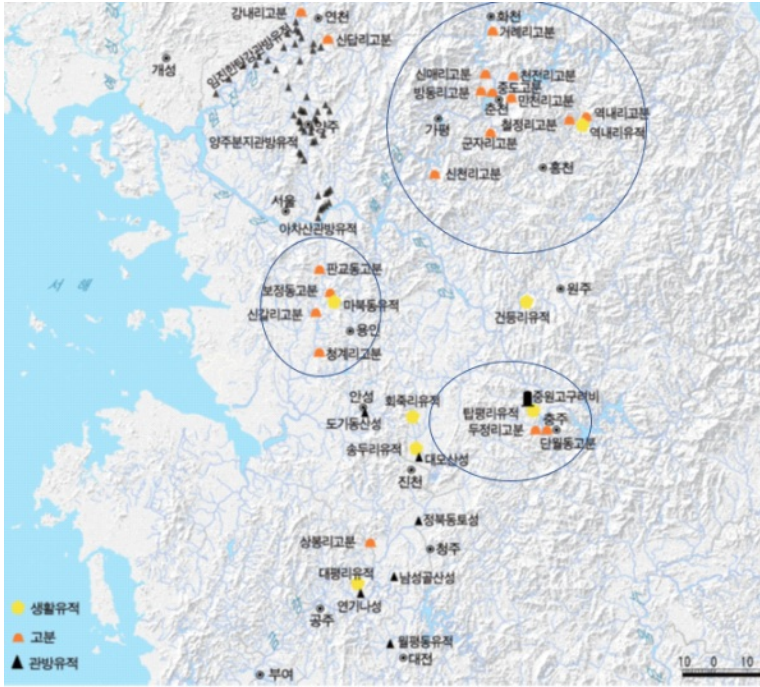
Ⅲ.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고고학적 의미

남한에 자리한 고구려 고분의 관심은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에서 알려진 적석총이 계기가 되어 북한강 유역에 고구려 고분이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원룡 1981, 1쪽). 1981년, 1982년 연이은 조사에서 춘천 방동리와 신매리 석실분의 벽면 백회 정면이나 삼각고임천장 등으로(조유전, 1987), 이 두 고분을 고구려 고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 그리고 경기도 내륙 남부에서 고구려식으로 축조된 40여기의 석실분이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은 30여 기에 달한다(그림3)³⁾.

1.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

중원지역에서 고구려식으로 축조된 석실분은 대개가 석실봉토분이며, 북한강 유역에서는 주구봉토분과 기단봉토분도 있다. 석실봉

3)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가평 이곡리 석실은 통구 분지의 고분과 같다고 하지만(朝鮮總督府, 1916, 14쪽) 석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양양 포월리3호 석실분은 잔존구조로는 고구려 고분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출토된 금동제 관고리로 미루어 고구려 고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무덤으로(江陵大學校博物館 外, 2002), 만약 고구려 무덤으로 밝혀진다면 영동지역에서 알려진 유일한 고구려 고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남한의 고구려 유적」(©최종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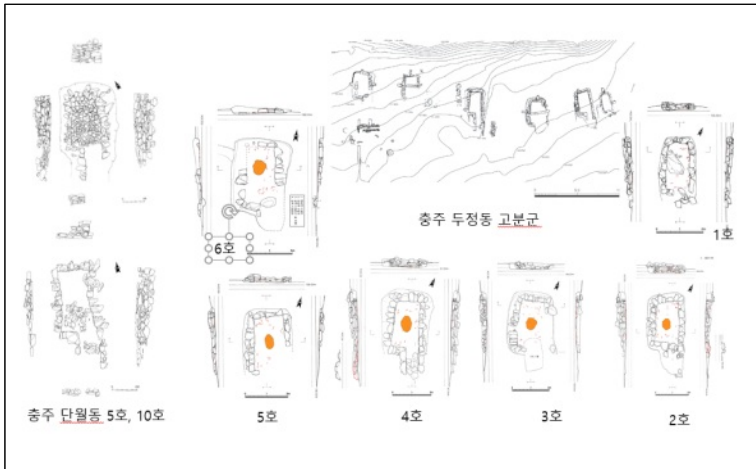
토분은 대개 강변의 충적 대지나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의 끝자락에 한 기나 두, 세기가 모여있다.

1) 남한강 유역

남한강 유역에서는 충주 두정동과 단월동 두 곳에서 고구려 고분이 확인되었다(그림4).

두정동 고분은 고구려 고분으로 이루어진 단일고분군으로 6기가 나란히 자리한다. 4호분과 6호분 주변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구들이 조사되었고, 2호와 6호분에서는 비슷한 기형의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1호분과 4) 2호분은

서로 인접하여서 동분이합장무덤으로 추정되며, 4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기 석실은 구조와 축조에서 동질성이 관찰된다. 현실은 길이 2.5m 내외, 너비 1.2~1.4m 내외로, 현실 평면은 세장방형이며, 연도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2호분은 현실 벽축조에 백회를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5기의 고분에서 그러한 속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현실 바닥 중앙부의 길이 60cm 내외의 부정형 불다짐 흔적은 파괴가 심한 1호분을 제외한 모든 무덤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어서 현실 바닥 불다짐은 두정동에서 현지화된 중원식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4: 남한강유역 중주 두정동, 단월동 석실분」

단월동 고분군은 구조를 알 수 없는 3기를 제외한 7기 고분 중 5호와 10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라 통일기 이후의 석실분이다

- 4) 1호분은 파괴가 심하여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쪽 단벽 오른쪽의 잔존상황으로 미루어 연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 구조로 추정된다. 특히 2호분과 가까이 있어서 동분이합장 무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崔茂藏, 1994). 5호분은 현실 길이 2.5m, 너비 1.9m로 1.3:1 비율의 방형에 가까우며, 10호분은 현실 길이 2.7m, 너비 1.2~1.34m 정도로 2:1을 넘는 세장방형으로 5호분과 현실 평면형은 차이가 있다. 현실 바닥을 백회로 정리하고, 벽은 할석을 사용하여 안으로 조금씩 들어서 축조한 방식은 서로 공통되며, 이러한 축조는 고구려식으로 보인다. 한편, 단월동10호분은 고구려 양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토기가 2점 공반되었는데, 그중 한 점은 승문타날단경호로 충주지역과는 차이를 보이는 6세기대 토기로 신라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어서(김정인, 2011, 26~27쪽), 고구려 석실의 신라 재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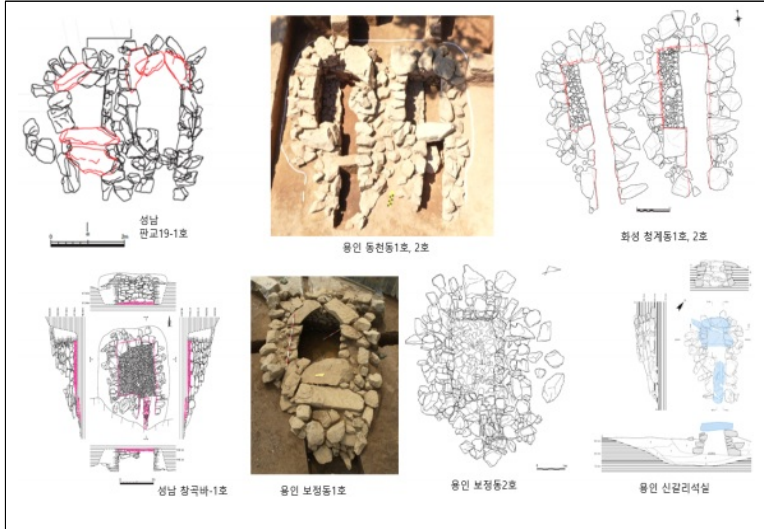
고분군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두정동 고분군은 신라의 중원 진출로 고분 조영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월동 고분군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자연스럽게 이행된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충주의 두 고분군이 현지화되었거나 중원식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충주 일원에서는 복수의 고구려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함께 고구려 주민의 충주로의 진출은 이 두 무덤의 축조보다 앞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

경기도 내륙 남부에서는 한강 지류역인 성남 판교와 창곡동, 용인 동천동, 보정동과 신갈리 그리고 화성 청계동에서 확인되었다(그림5).

성남 판교19지구에서는 동분이혈합장을 포함한 석실 두 기가 조사되었으며 주변에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가 있다(韓國文化財保護財團 外, 2012). 19-1호 석실은 지상의 분구 중에 위치하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 평면이다. 19-2호는 관대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1호분과 같은 구조이다. 두 무덤 모두 현실 바닥에 적갈색 점토를 다진 후 부분적으로 불다짐한

흔적이 있으며, 벽 틈새는 잔돌과 회로 메우고 삼각고임천장이어서 고구려식으로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 고구려 석실분」

성남 창곡동 바지구 1지점에서 조사된 3기는 완만한 능선에 자리한다. 1호분은 2호, 3호분과 80m 정도 떨어져 있고, 2호와 3호는 14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자리한다(中央文化財研究員外, 2014). 2호와 3호분 주변에서 삼국시대 수혈과 주거유적이 확인되었다. 파괴가 심한 2호분을 제외한 1호와 3호 석실은 방형에 근사한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이며, 규모는 4.2㎡(3호)이며, 파괴된 2호분의 잔존 규모도 6.38㎡를 상회하여서 중원지역의 고구려 고분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이다. 1호 석실은 현실 바닥을 부분적으로 불처리 한 후 자갈을 깔았고, 벽틈새는 잔돌로 메웠다. 벽의 상부가 파괴되었지만 북동모서리에 삼각고임돌로 추정되는 작은 석재가 남아있어서 삼각고임 천장일 가능성이 있다. 구조와 함께 현실 내에서 원두정 관정이 출토되어서 고구려 석실로

판단하지만, 현실 입구에서 연도를 따라 설치된 암거식 배수시설은 백제 석실에서 보이는 속성이어서 석실 축조에 고구려식 속성과 백제식 속성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호분은 현실 바닥에 판상석을 깔은 후 할석을 깔았으며, 원두정 관못과 금동 소환이 출토되었고, 3호분은 현실 바닥을 부분 불처리한 후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할석을 깔았다. 이러한 것은 1호와 2호에서 보이는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성남 창곡동 석실에서는 고구려식, 백제식, 중원식 요소가 모두 확인된다.

용인에서는 동천동과 보정동, 신갈리에서 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동천동에서는 동분이혈합장의 석실이 조사되었고(동천동1호와 2호분)(김호진, 2020), 보정동에서는 보정동1호와 2호분(漢陽大學校文化財研究所, 2007), 보정동 청자요지석실, 소실유적21호분(京畿文化財團 外, 2005) 등 4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갈리에서는 석실 한 기가 조사되었다(서경문화재연구원, 2017). 석실은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이며, 현실 평면은 보정동1호분(1.53:1)을 제외하면 모두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평면이고, 현실 바닥에 할석을 깔고, 벽 틈새를 점토로 메우는 등 축조방식은 중원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천동2호분과 보정동 청자요지석실, 보정동1호분의 삼각고임 천장은 고구려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정동에서는 관대가 없으며, 보정동을 제외한 용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대가 확인되었다. 신갈리 석실은 현실은 한변 길이 1.59m, 너비 1.17m로 동실 추가합장이 어려운 크기로 보정동2호분이나 동천동2호분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벽석 사이에 백회가 확인된 것은 고구려식 속성으로 이는 충주 두정동2호분에서도 관찰되었다.

화성 청계동에서는 신라 통일기 고분과 함께 동혈합장석실분(1호와 2호)과 석실(3호)이 조사되었고, 3호분은 파괴가 심하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1호와 2호분 석실 구조는 보정동2호분, 판교 19-1호분과 유사하며, 축조는 중원식으로 하였다.

이처럼 경기도 내륙 남부 각 지의 석실은 고구려식으로 축조한 것, 고구려식과 중원지역 고구려식 속성이 결합 되기도 하고, 백제 요소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의 고구려 석실의 조성은 고구려의 남방으로 진퇴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북한강 유역

북한강 유역의 고구려 석실분은 화천, 춘천, 홍천 등지에서 조사되었고, 각지의 고분은 한 기나 두, 세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과 유사한 양상이다. 아직 석실 내 고구려 양식 토기의 부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그림6).

화천 거례리 석실분은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 중 가장 큰 규모(7.25㎡)이다. 현실은 방형이며(평면비 1.16:1),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는 밖으로 비스듬하게 뺏어나갔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전체적인 석실 평면 형태는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보다는 화성 마하리1호석실이나 익산 입점리1호분 등 백제 한성기 석실분과 유사하다. 현실 바닥은 강자갈을 깔고 그 위에 대형 판석을 깔고 강돌로 틈새를 메웠고, 현실 내에서 자리를 잃은 원두정과 방두정 관정이 출토되었다. 방형 현실과 방두정은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에서는 드문 예이고, 현실 바닥의 두 차례 돌을 깔은 것으로 고구려 남하에 따른 백제 석실의 고구려 재사용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춘천은 단일 지역 내 가장 많은 고분이 분포하는 곳으로, 신매리, 방동리, 천천리, 만천리, 군자리에서(江原文化財研究所, 2005a ; 2008 ; 2010 ;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석실분이 조사되었다. 흙을 덮어 분구를 하였지만, 신매리(2019)석실과 천천리B-가-1호석실은 봉토분구 주위에 도랑이 돌아가는 주구봉토분이고, 방동리2호분은 기단봉토분이다. 석실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가 다수이지만, 천천리B-가-1호석실의 연도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중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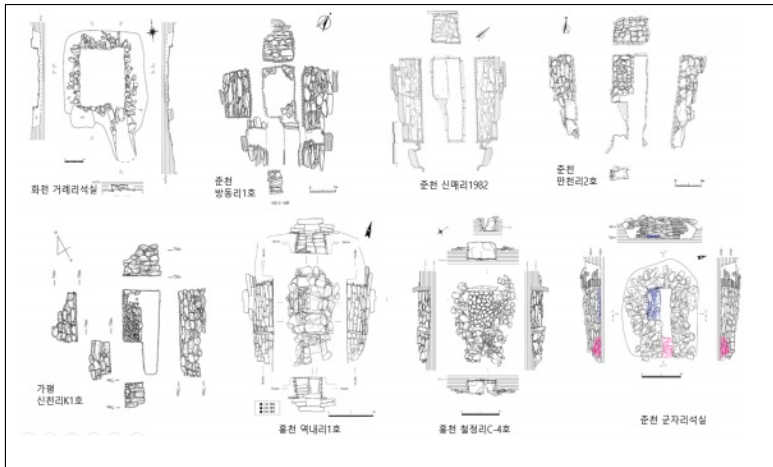
도로, 중앙연도는 고구려에서는 선호되었지만, 중원지역에서는 아직 유일한 예이다⁵⁾. 춘천의 석실은 현실 규모 2~3m²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소형이며, 현실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1.5:1 미만)이 장방형(1.5:1~1.7:1)이 많은 편이며, 세장방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벽면 축조에 백회 사용은 춘천 일대 고구려 석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8기 석실 중 5기에서 벽면의 백회정면이 확인되었다. 삼각고임식천장은 신매리(1982)호 석실과 방동리1호와 2호분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방동리2호분은 분구와 석실 모두 고구려식으로 축조하였고, 신매리(1982)호분과 방동리1호분도 고구려식으로 축조하였다. 만천리1호와 2호는 벽면에서 고구려식 속성이 채택되었고, 신매리(2019)호(예맥문화재연구원 2021)와 천전리B-가-1호석실은 고구려식과 재지 요소가 결합된 무덤이다. 군사리석실분은 고구려식이 아닌 중원식으로 축조하여서 춘천의 석실 중에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평 신천리의 석실은 K-1호와 2호 두 기로,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이며, 할석을 누어서 벽을 쌓고 벽틈새는 잔돌과 점토로 메웠다는 점에서 고구려식보다는 중원식으로 축조되었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1호와 2호 석실은 한 줄의 석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1호 석실은 장방형 현실 내에 관대가 있고, 모줄임 천장을 하였으며, 2호석실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현실이다. 이외에도 K-1 석곽은 중도C2-1호 석곽과 평면과 규모가 같다.

홍천에서는 역내리와 철정리 두 곳에서 고분이 조사되었으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b, 2007), 역내리에서는 신라 통일기 무덤이 함께 한다. 역내리 1호분은 할석을 누어서 벽을 쌓고 천장은 고임

5) 천전리B-가-1호 석실을 포함하여 춘천의 석실을 백제와 관련지어 보기도 하지만, 천전리B-가-1호 석실은 현실 바닥과 벽면에 백회를 사용하였고, 양 장벽에 있는 관대에도 회미장을 하였다. 따라서 석실은 고구려식으로 축조하였고, 분구에 재지의 주구가 결합한 결합한 주구봉토분이다.

식이며, 2호와 3호분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석실 안과 밖에서 신라 통일기 토기가 출토되어서 고구려 석실의 신라 재사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철정리C지구의 고구려 석실분은 세 기로 C-2호분은 주구봉토분이며, 나머지 두 기는(C-3, 4호) 석실봉토분이다. 석실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이며, 현실은 할석을 뉘어쌓고 잔돌로 벽 틈새를 메우고, 바닥은 암갈색 점토이다. 이러한 속성은 중원식 고구려 석실 속성이다. 다만, C-4호분은 북단벽과 남단벽은 판석을 세워 축조하였는데, 고구려 석실 축조에서 판석 사용은 드문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림6: 북한강 유역의 고구려 석실분」

이처럼 북한강 유역의 고구려 석실분에는 봉토분 외에도 주구봉토분과 기단봉토분이 있다. 주구봉토분의 주구는 북한강 유역 선행 묘제의 주요 요소이고, 기단봉토분은 고구려 적석총과 봉토분이 결합된 분구이다. 한편, 화천 거례리 석실은 백제 한성기 석실의 구조 특징이 공유되었으며, 고구려식으로 축조하거나 중원지역 석실의 속성과 함께 하는 석실 중에는 신라 통일기 이후의 토기가 부장되기도 하는 등 남한강이나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의 복합적인 양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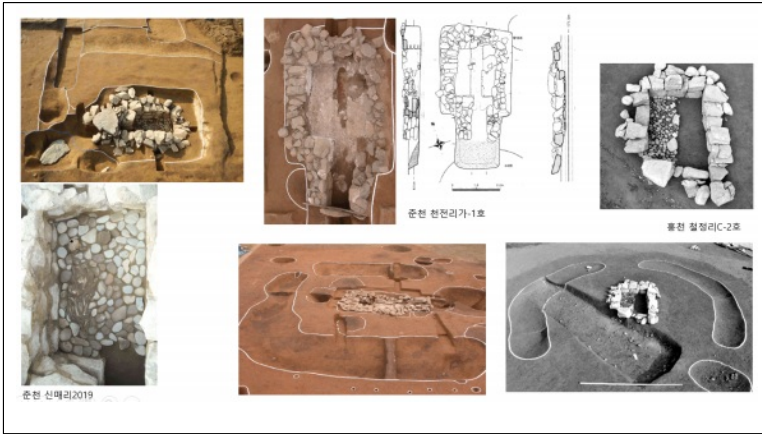
는 다른 점이 있다. 북한강 유역이 고구려에서 남한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길목의 하나이고, 일부 지역은 백제 한성기의 세력권에 속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은 백제의 영서 지역 진출 그리고 고구려의 남방진출과 퇴각 등과 관련지어 볼 여지가 있다.

2.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 유형

하나의 건축물로서 석실을 축조하기 전에 분구는 물론, 현실과 연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무덤 축조방식이나 매장 의례 등 전해오는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토분은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 구조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석실은 고구려식으로 축조하거나, 중원식으로 축조하기도 하고 양자의 속성이 선택적으로 결합되거나 해당 지역 선행묘제 속성(주구나 암거식 배수시설)이 결합되는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양상의 중원 지역 석실을 나누어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덤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구이다. 중원지역 석실분토분의 분구는 반구상으로 분구 형태 그 자체는 변별력이 없다. 규모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규모에 반영된 의미는 추적할 수 없다. 다만, 방동리2호분의 기단분토분은 고구려식이고, 춘천 천전리가-1호분과 신매리(2019)호분, 홍천 철정리C-2호분은 주구분토분이며, 주구는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석관묘에서부터 확인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그림7).

현실은 대부분은 2~4㎡ 정도 규모로 소형분에 해당된다. 특히 북한강 유역 석실분의 현실은 2㎡ 내외 소규모이다⁶⁾. 그보다 큰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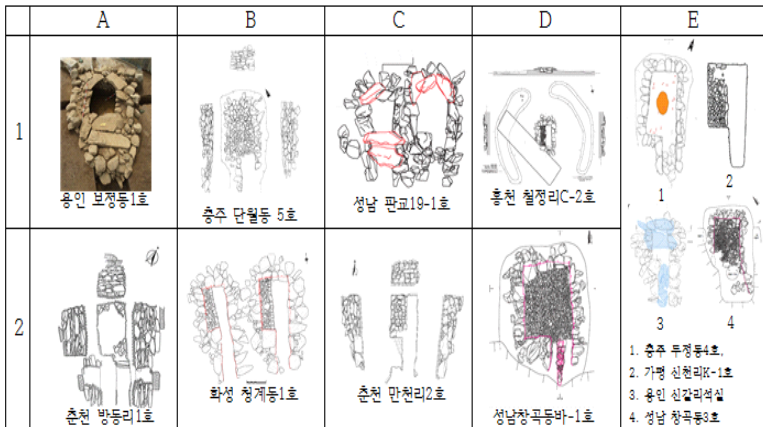
「그림7: 북한강 유역 주구봉토분」

모는 3~3.6㎡ 정도의 충주 두정동고분군이고,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의 용인 보정동과 성남 창곡동 석실분의 현실이 4㎡ 정도 비교적 큰 편이다. 그 중 화천 거례리 석실분(7.25㎡)와 성남 창곡동바-1호분(5.94㎡) 충주 단월동5호분(4.75㎡)과 용인 보정동1호와 2호분(4.42㎡, 4.05㎡)이 중원지역에서는 대형분에 해당되며,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현실은 북한강 유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실 평면형은 화천 거례리 석실처럼 방형 현실(1.16)도 있지만, 대체로 장방형이 우세하다. 장방형 현실은 평면비 1.5:1~2.4:1까지 너른 분포를 보이며, 충주 두정동고분군의 6기 석실은 모두 세장방형이다. 북한강 유역과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 현실은 방형계 장방형(1.5:1미만)이거나 장방형 평면(1.7:1미만)이며, 방형계 장방형과 장방형 평면의 석실이 동분이혈합장무덤에서 함께 자리하여서, 현재로서는 장방형 현실 평면의 세부적 차이에 고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6) 합장이 확인된 신매리(2019)호석실의 경우 현실 규모 1.92㎡인 점으로 보아 2㎡ 정도 규모에서도 추가합장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축조에는 고구려식 또는 중원식, 비고구려식 등 여러 속성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가령, 현실 바닥과 벽 축조에서 백회 사용과 고임천장은 고구려식 축조 속성이지만, 현실 바닥과 벽 축조에 백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기도 하여서 이러한 축조 속성은 중원식 속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실 바닥의 불다짐은 두정동 고분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어서 충주 일원의 지역화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분구의 주구나 암거식 배수시설은 비고구려식 속성이다. 따라서 중원 지역 석실분토분은 석실 축조 방식과 고구려 양식 토기의 부장 여부를 기준으로 몇가지로 유형 설정이 가능하다(그림8).



「그림8: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 유형」

A형은 고구려식으로 축조한 무덤으로, 현실 바닥이나 벽의 백회 사용, 삼각고임천장 석실이다. A형 석실은 고구려 양식 토기 부장 여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된다. A1형은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용인 보정동1호분과 흑색마연호가 부장된 2호분도 외벽 보강석의 잔존상황을 미루어 1호분과 같은 방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여서 A1형으로 추정된다. 부장 토기의 상대 편년에 따르면(최종택, 2011) 두 무덤의 연대는 5세기 중, 후엽으로 비정된다. A2형은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지 않은 무덤으로 춘천 방동리1호와 2호분 그리고 신매리(1982)석실과 동분이혈합장무덤인 성남 판교 19-1호분이 있다. A2형의 시간 판단은 어렵지만, 기단봉토분구의 춘천 방동리2호분은 고구려 기단봉토석실분에 비추어 보면 5세기 중엽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형은 고구려식 속성의 일부가 반영되거나 중원지역 속성이 반영된 석실로,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무덤이다. 고구려 석실 속성이 반영된 B1형과 중원지역 속성이 반영된 B2형으로 나뉜다. B1형 무덤은 현실 바닥이나 벽면에 백회를 사용한 것으로 충주 단월동5호와 10호분, 그리고 두정동2호분이 있다. 단월동의 경우 현실 바닥에 백회를 사용하였고, 두정동2호분에서는 현실 벽에 백회를 사용하여서 고구려식 속성 선택에서의 차이를 보이지만, 현실 평면은 단월동10호분과 두정동2호분 모두 세장방형이다. 따라서 충주 일원 내에서 두정동과 단월동 고분을 동질 집단의 무덤으로 보기 어렵지만, 서로 무관한 집단은 아닐 것이다. 부장된 고구려 양식 토기는 기형으로 보아서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단월동10호분은 공반된 승문타날단경호는 고구려 양식 토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6세기대 신라 토기로 해석되고 있다(김정인, 2011, 26~27쪽). 따라서 단월동10호분은 신라에서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B2형 석실은 충주 두정동6호분과 화성 청계동1호분이 있다. 두정동6호분은 세장방형이고, 현실 바닥에 불다짐을 하였고, 화성 청계동1호분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현실이며, 현실 바닥은 자갈을 섞은 적갈색 점토를 다져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따라서 양 고분 간 관련짓기 어렵지만, 부장토기로 미루어 B2형 석실도 5세기 후반경으로 비정된다.

C형은 고구려식 구조 속성 일부가 선택적으로 반영된 무덤으로

고구려 양식 토기는 부장되지 않았다. 선택된 구조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세분되는데, C1형은 삼각고임천장의 성남 동천동2호분과 용인 보정동 청자요지석실분이다. 이 무덤들은 소형분으로 바닥을 점토로 정면하였다는 점이 서로 공통된다. C2형은 현실 벽면에 백회를 사용한 것으로 춘천 만천리1호와 2호분, 용인 신갈리 석실분 그리고 성남 창곡동바-3호분이 있다. 성남 창곡동바-3호분은 4.2㎡로 비교적 큰 규모이며, 나머지 무덤은 현실 면적 2㎡ 내외의 소형분으로, 천장은 벽면을 줄여가면서 쌓아 올린 후 들을 덮은 평천장으로 추정된다.

D형은 고구려식 속성과 비고구려 속성이 결합된 무덤이다. D1형은 분구 주위에 주구가 설치된 것으로 북한강 유역의 춘천 천전리 B-가-1호 석실과 신매리(2019)석실, 홍천 철정리C-2호분 등이 있다. 북한강 유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주구석관묘와 주구토광묘가 조성되었던 곳으로, 해당 지역의 주구묘 전통에 고구려 석실의 속성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덤의 조성 시기를 판단할 수 없지만, 천전리B-가-1호석실의 오른쪽으로 기운 중앙연도로 미루어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 석실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2형은 암거식 배수시설이 결합된 무덤으로 성남 창곡동바-1호분 한 기뿐이다. 창곡동바-1호분의 삼각고임천장은 고구려 석실의 속성이나, 현실 바닥의 부분적 불다짐은 충주 두정동고분군에서 보이는 중원식 속성이고, 현실 입구에서 연도를 따라 설치된 암거형 배수시설은 백제 석실에서 보이는 속성이다. 이처럼 석실 축조에 여러 요소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삼각고임천장으로 미루어 백제 석실을 보수하여 고구려에서 재사용했을 가능성보다는 백제 석실 요소와 중원식 속성이 선택되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에 초점을 두자면 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이며, 후자에 초점을 두자면 무덤 축조의 하한은 국원경의 상실을 고려하여 6세기 초로 내려 볼 여지도 있다.

E형은 중원식 속성이 반영된 석실로, 지상이나 반지상식 석실, 뒹어 쌓은 벽틈새의 잔돌 채움, 원두정 판못과 관고리 등으로 고구려 석실로 판단된 무덤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충주 두정동의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지 않은 1, 3, 4, 5호분, 성남 판교 19-2호분, 용인 보정동 소실21호분, 화성 청계동2호분과 화천 거례리 석실분, 춘천 군자리 석실분, 홍천 철정리C-3호와 4호분, 역내리1호분과 가평 신천리K석실1호와 2호분 등이 있다. 홍천 역내리1호, 2호, 3호석실에서는 신라 통일기 토기가 출토되어서 고구려 석실의 신라 재사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천 거례리 석실은 백제 한성기 석실과 유사한 구조로, 현실 바닥을 점토로 다진 후 강돌을 놓고 다시 그 위에 판석을 놓은 후 틈새를 자갈로 메운 것으로 보아 바닥을 두 번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구조 특징과 화천 원천리에서 대규모 백제 한성기 마을 유적을 고려해 볼 때 백제 한성기 석실의 고구려 재사용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화천 거례리 석실분은 고구려의 백제 한성 공략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이므로 5세기 말로 연대 비정할 수 있다.

3.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 유형의 의미

중원지역 석실분의 장방형 현실과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 축조 방식, 고구려 양식 토기 부장 등은 넓은 의미에서 고구려라는 동질의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조와 축조방식 등에서 관찰되는 세부적인 차이는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이 동일집단의 주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충주 두정동 고분군을 제외 하고는 한기 또는 두, 세기로 이루어진 각지에 분산된 고분은 동일 지역의 고분군 간 또는 고분군 내에서의 가시적 정형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길어야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조성된 석실이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별 무덤 축조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료로는 복합적 요인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고분이 가지는 전통적 보수성, 특정 양식 토기와 주민과의 관련 등 고고학적 전제에서 석실 유형을 무덤 축조의 주체인 주민과 결부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 주민은 고구려에서 출생하여 남하한 자 그리고 중원지역에서 출생한 그의 후손 외에도 중원지역이 고구려 영역이 되면서 고구려 주민이 된 비고구려출생자도 있을 것이다. 고구려 출생자와 고구려 출생자의 후손으로 중원지역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된 자로 범주화된 주민과 무덤이 시간과 상관성을 갖고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고구려가 중원으로 진출하여 실질적으로 중원지역을 지배했음을 고려해 볼 때 석실유형과 주민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출생자(Ⅰ)의 무덤이 그 후손인 중원 출생자(Ⅱ)의 무덤보다 상대적으로 앞설 것이며, 비고구려 출생자(Ⅲ)의 무덤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민Ⅰ은 무덤이 가지는 전통적 보수성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무덤을 축조하고, 고구려 양식 토기를 부장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A1형의 용인 보정동1, 2호분, A2형인 춘천 방동리1호와 2호분, 신매리(1982)호분이 주민Ⅰ과 관련있을 것이다. A1형과 A2형은 고구려 양식 토기 부장 여부에 의한 것으로 토기 부장은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과 북한강 유역이라는 지역 차이를 보여주어서 고구려에서 함께 남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민Ⅱ는 고구려에 계보를 둔 중원 출생자로, 한 세대 또는 두 세대를 거치면서 고구려 무덤 축조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일부 속성만이 반영되거나, 현지 정착하면서 중원식으로 변용된 방법으로 무덤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Ⅱ의 무덤은 여러 양상을 보일 것이다.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된 B1형의 충주 단월동5호분과 10호분, 두정동의 2호와 6호분은 고구려식 속성인 백회를

사용하였지만 나머지는 중원식으로 축조하였다. 특히 단월동에서는 현실 바닥에, 두정동2호분에서는 현실 벽에 백회를 사용하여 고구려식 속성 선택에서 고분군 간 차이가 있다. 중원식으로 축조한 화성 청계동1호분에서는 B1형에 부장된 것과 비슷한 기형의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어서 서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지만, 고구려식 축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지 않았지만, 고구려식 속성이 반영된 C1형의 성남 판교 19-1호, 용인 동천동1호와 2호분, 보정동 청자요지석실은 고구려에 계보를 둔 중원 출생자이거나 용인 보정동1호와 2호분의 주민1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중원식으로 축조한 춘천 만천리1호분과 2호분, 용인 신갈리 석실분 그리고 고구려식과 중원식 그리고 백제 요소가 반영된 D2형의 성남 창곡동1호분은 상대적으로 늦게 조성되었을 것이다. 중원식으로 축조되고 고구려 양식 토기가 부장되지 않은 E형의 충주 두정동3, 4, 5호분과 화성 청계동2호분 그리고 용인 보정동소실21호, 성남판교19-2호분 등은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고분군 내의 석실과의 관계로 볼 때 고구려에 계보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Ⅲ은 고구려에 편입된 비고구려 출생자의 무덤이다. D1형의 주구봉토분인 춘천 천전리가-1호분과 신매리(2019)호석실, 홍천 철정리C-2호분은 해당 지역의 선주민의 후손일 것이며, 해당 지역 선행묘제 요소와 고구려식 속성이 결합하였으므로 고구려에 계보를 둔 주민Ⅰ의 관련 하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물론 고구려 주민Ⅰ이 현지 속성을 반영하여 축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분구의 가시성을 고려해보면 비고구려 출생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천전리가-1호분이 장방형 현실 중앙연도이고, 고구려에서 중앙연도를 선호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5세기 중엽 이전에 춘천 일대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고려할만하며, 고구려의 북한강 유역 진출은 무덤의 추정연대보다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 현실의 E형 무덤인 화천 거례리 석실분은 석실의 평면구조와 현실 바닥 시설로 미루어 백제 한성기석실의 재사용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화천 원천리에서는 백제 한성기의 대규모 마을이 조사된 바 있어서, 화천 거례리 석실분은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한 475년 이후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된 자에 의해 백제 석실이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유형과 주민 계통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고분 조성에서의 선후관계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충주 두정동고분군을 제외하고는 한 기나 두, 세기로 이루어져서 누대에 걸쳐 조성된 것이 아닐 것이므로, 동일 지역에서 확인되는 석실은 고구려출생 주민보다는 중원출생 고구려주민Ⅱ의 무덤이 상대적으로 늦을 것이다. 비고구려계 주민의 경우 해당 지역이 백제 한성기 영역에 포함되므로 고구려의 한성공략과 관련있을 것이므로 5세기말로 비정지을 수 있다(표1).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고구려 석실이 출현한 것은 북한강 유역 춘천 일대이다. 기단봉토분과 고구려식 석실로 미루어 5세기 중엽경에는 방동리1호와 2호분과 신매리(1982)호분이 조성되었을 것이고, 주구봉토분인 춘천 천전리가-1호분, 신매리(2019)호분, 홍천 철정리C-2호분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분구의 주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이므로, 북한강 유역 오랜 전통의 주구묘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무덤의 주민은 맥 혹은 말갈에서 고구려로 계기적으로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이 남하하여 무덤 축조까지의 경과를 고려해보면 고구려의 춘천 일대로 진출은 5세기 중엽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하여 한강유역을 확보함에 따라서 고구려 석실은 가평과 홍천, 화천 일대까지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다. 신라 통일기 토기가 부장된 홍천 역내리2호와 3호 석실은 고구려의 퇴각으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계기적으로 전환되었을

것서이다.

남한강 유역도 충주 일원에서 확인되며, 고구려 양식토기로 미루어 5세기 중후반에는 고구려 석실이 축조되었을 것이다. 그 중 단월동고분군은 단월동10호분에 공반된 승문타날단경호로 미루어 고구려에서 신라 진출에 따라 신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두정동고분군은 1호와 2호분 조성을 시작으로 고분이 조성되었고, 정형화된 석실로 미루어 세대를 이어가면서 조성되었을 것이나, 고구려 퇴각으로 고분 조영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충주의 고구려 주민은 고구려 양식 토기에 의한 5세기 중후반보다는 앞서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원경이 설치되었음과 두정동과 단월동의 고분이 중원 출생의 고구려계 주민에 의해 조성되었다면, 충주 일원에는 고구려 출생의 주민 집단에 의해 조성된 고구려 석실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내륙 남부지역에서의 고구려 석실은 한성 진출에 따른 것으로 475년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비슷한 기형의 고구려 양식토기로 미루어 A1형의 용인 보정동1호와 2호분, B2형의 화성 청계동1호분과 고구려식으로 축조한 C1형의 성남 판교19-1호와 2호분과 D2형의 성남 창곡동바-1호분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고구려 출생자이거나 고구려에 계보를 둔 중원 출생자의 무덤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무덤이 화청 청계동2호분, 용인보정동소실21호분, 동천동1호와 2호분 등으로, 조금 늦게 조성되었을 것이다. 여주 신갈리 석실은 충주 두정동 주민의 퇴각에 따라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기도 남부 내륙의 성남, 용인, 화성은 고구려 남방 진출의 주요 거점지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그 가운데 여러 지점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확인된 용인 일대가 경기 내륙 남부지역의 최대 거점지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관점에서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 유형을 추론해 본 결과,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 주민은 고구려에 직, 간접 계

	5C후반	6C초
북한강유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춘천 방동리1.2호본 신매리1982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10px;"> 천전리가-1호본 신매리2019본 춘천 칠정리C-2호본 </div>	파천 거례리 석실 춘천 단천리1.2호본 군자리 석실본 춘천 칠정리C-3, 4호본 역내리2.3호본
남한강유역	충주 두정동1-6호본 단월동5호	단월동10호본
경기도 남부 내륙지역	고구려계주민 고구려출생주민 중원출생주민 비고구려계주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용인 보정동1.2호본 보정동장자요지석실 보정동소실21호본 용현동1.2호본 </div> 성남 판교19-1, 19-2호본 창곡동마-1, 2, 3호본 화성 청계동1호본 용인 신갈리석실

「표1: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의 전개 양상」

보를 가진 주민 외에도 말갈 혹은 맥에서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된 자, 또는 백제에서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되는 등 중원지역에는 다양한 계보의 고구려 주민이 있었음이 상정되며, 그중에 일부는 신라의 한강 진출에 따라 신라 주민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은 고구려 주민이 마한, 말갈 또는 맥, 백제 주민과 신라 주민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V. 맺음말

중원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한, 맥 혹은 말갈, 백제, 고구려, 신라 등 여러 정치체의 활동 공간이어서 물질문화에서의 경계 짓기가 쉽지 않으며, 중원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분은 현실 바닥과 벽, 천장에서 고구려식의 속성이 잘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구려식 속성이 선택적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중원지역에서 변용된 중원식 방식으로 축조되기도

하며, 해당 지역의 선행묘제 요소와 결합하기도 한다. 더욱이 석실의 구조가 고구려 양식 토기 부장과 대응되지도 않아서 석실 축조에서의 일관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 자료의 양적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중원지역 고구려 석실분의 다양한 양상을 고분이 가지는 전통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라는 전제에서 주민과 결부시켜 볼 때 고구려식으로 축조한 석실분이 중원식으로 축조한 석실보다는 앞설 것이며, 비고구려 속성과 결합한 석실분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원지역 석실분의 주민은 고구려 출생자, 고구려에 계보를 둔 중원지역 출생자, 그리고 고구려 주민으로 편입된 비고구려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점하는 주민은 고구려에 계보를 둔 중원지역 출생자로, 이는 길어야 100이 채 안되지만 고구려가 중원 지역에 실효적 지배가 안정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고분 조사가 단편적이어서 추론에 한계가 있지만, 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중원지역의 고구려 석실은 맥 혹은 말갈과 백제 그리고 신라 주민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원지역의 고구려 고고 자료가 추가된다면, 문자 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2.11.11, 심사개시일: 2022.11.15.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연구』, 진인진
강현숙, 양시은, 최중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금경숙, 2001, 「고구려 영역으로서의 북한강유역- 말갈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11
김정인, 2011, 「충주지역 고구려계 고분과 그 성격」, 『중원문화
재연구』5
金元龍, 1981, 「春城郡 芳洞里的 高句麗系 石室墳 二基」, 『考古
美術』149
김호진, 2020, 「용인 동천동 고구려 석실묘」, 『선사와 고대』62
盧熾眞·沈載淵, 1993, 「江原道 春城郡 芳洞里的 特異構造 石室墳」,
『古文化』42·43
동북아역사재단, 2020, 『충주 고구려비』
백종오, 2009, 「남한 내 고구려고분의 검토」, 『고구려발해연구』35
백종오, 2014,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 유물의 검토」, 『고구려발
해연구』고50
성정용, 2021, 「중원역사문화의 형성과 그 의미」, 『융합의 공간,
중원, 중원역사문화의 정체성』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고
구려발해연구』36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10-2
양시은, 2014,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서고
고학』46
여효규, 2020, 「고구려의 한반도 중부지역 지배와 한성별도의 건
설」, 『한국고대사연구』99 임기환,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고구려연구』10

- 최병현, 2015, 「중부지방 백제한성기축조. 신라재사용 석실분과 고구려.신라연속조영 고분군」, 『고고학』14-2
- 최병현, 2011, 「중부지방 고분문화의 전개」, 『중부지역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II)』, 2011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 崔鍾澤, 2006,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研究」, 『先史와 古代』24
- 최중택, 2011, 「남한지역 고구려고분 구조 특징과 의의」, 『한국 고고학보』 제 81집
- 최중택, 2014,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50
- 최중택, 2016, 「호서지역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호서고고학』?
- 하대룡, 2021, 「춘천 신매리 고구려석실 피장자의 사체처리방식 검토」, 『고고학』20-2

-발굴조사보고서-

- 江陵大學校博物館, 襄陽郡, 2002, 『襄陽 浦月里 住居址』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a,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Ⅰ)-國道 44號線(구성포-어론간) 道路 擴·鋪裝工事區間內 遺蹟發掘調查報告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b, 『洪川 驛內里 古墳群-國道 44號線(구성포-어론간) 道路 擴·鋪裝工事區間內 遺蹟發掘調查報告書Ⅱ』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洪川 哲亭里 Ⅱ遺蹟-홍천 구성포-두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泉田里 B지역』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0, 『洪川 哲亭里 Ⅱ遺蹟 B·C地區』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5,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查報

告書-본문·도면-』

중원문화재연구원(김병희·유용수·김정인·오운석), 2010, 『忠州 豆井里遺蹟-충주 클린에너지파크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崔茂藏, 1994, 『忠州 丹月洞古墳群』

한백문화재연구원(이재설·신승주·박지영·조충현), 2009, 『서울-춘천고속도로 5공구 I·J·K지구내 가평 신천리유적』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이희수·배기동·이한용·김기룡), 2009, 『용인 보정동 고분』

趙由典, 1987, 「春城郡 新梅里 高句麗式 石室墳 一例」,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考古學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5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春川市 東面 萬泉里古墳 發掘調查報告書』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화성 청계 택지개발지구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회의자료(가지구)』

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거례리 1지구 유물산포지 4구간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1-3번지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Abstract】

**The Archaeological Meaning of Koguryo
stone-chambered tombs in Jungwon Region**

Kang, HyunSook

There are not enough archaeological data to interpret it in connection with Koguryo residents in the Jungwon region.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Jungwon region was occupied by Koguryo through <Chungju Koguryo Monument> and the SamgukSagi.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rcharological meaning of Koguryo stone chambered tomb in the Jungwon region is to be considered.

The tomb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are stone chamber tombs built in the Koguryo style or where Koguryo-style earthenware was buried in the Bukhangang and Namhan River basins and the inland area in southern Gyeonggi-do, built between the end of the 5th and the beginning of the 6th century. It will be analyzed that tombs are evidence of the lives of the people of Koguryo, and analyz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 strong conservative tendency to preserve the tradition.

As a result, stone chambered tombs in the Jungwon region were constructed with in the Koguryo style, the Jungwon style, or the Koguryo and the Jungwon style together, or the non-Koguryo style was also used. Based on Koguryo-style earthenware and tomb construction methods, Koguryeo stone chamber tombs in Jungwon religion are subdivided into nine types. And each type of tomb in the Jungwon region can be given archaeological meaning in that it provides clues about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the route to the south of Koguryo, and the timing of their

advance into the Jungwon region.

Keywords: Jungwon region, Koguryo, stone chambered tomb, Koguryo style earthenware